

## 전체 주제 :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 메시지 3

####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함

성경: 행 7:2, 히 11:8-10, 창 12:1-3, 7-8, 13:3-4, 18, 14:1-24, 갈 3:6-7, 14, 16, 29

- I. 삼일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골 2:9)는 아브라함의 씨(후손 혹은 자손)이다(창 12:7, 마 1:1, 갈 3:16).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고후 5:17)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골 1:27),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 속한다(엡 5:30).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씨이다(갈 3:7, 29).
  - A. 육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 생명의 영이 되셔서(생명 주시는 영, 생명의 영으로 변형되셔서 혹은 공기화되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고전 15:45하, 롬 8:2)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 B.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후손 혹은 자손)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 곧 아브라함의 복이신 완결되신 영을 받아들이고 상속받을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신다 — 갈 3:6-7, 14, 16, 29.
- II.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요소가 그의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지고 주입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 행 7:2, 비교 요 14:21, 막 11:22.
  - A.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의 생활은 현재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아브라함의 삶과 역사의 수확이어야 한다 — 히 11:8-9.
  - B. 믿음은 하나님의 옮겨 부음과 주입과 적심에 의해 산출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 계 5:6, 고후 2:10, 히 12:2, 갈 2:20, 비교 막 11:22.
  - C.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인이었다는 관념을 가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역사를 고려해 본다면 유일한 믿음의 거인은 하나님 자신뿐임을 깨달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타고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씨 그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믿는 요소로 옮겨 부어지시어 그의 믿음이 되셨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매혹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감상한 것이었다.
  - D.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나타나심으로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으셨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질이 자신의 존재 안에 영적으로 스며들고 주입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 창 12:1-3, 7-8, 13:14-17, 15:1-7, 롬 4:3, 창 18:17-19, 비교 행 26:16, 22:14-15.
  - E. 주 예수님은 위대하신 '나는 -이다' 곧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안에 옮겨 부으셨다 — 요 8:56-58, 출 3:14-15, 행 7:2.
  - F. 우리는 거듭해서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청해야 한다. “계속해서 저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아야 하고 영원토록 보아야 한다 — 요 14:21, 행 26:16, 딤후 4:8.
  - 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신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 창 12:7-8, 13:3-4, 18, 롬 1:17, 4:16-17, 히 12:1-2상, 마 16:18, 롬 12:1-2, 계 21:2.

- H.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히 11:8)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을 훈련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여행을 위한 지도로 취할 기회를 주었다(출 33:14-16).

### III.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창 12:7-8, 13:3-4, 18.

- A.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옮겨 부으심은 우리를 헌신하도록 이끌고, 이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단을 쌓고 천막에서 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할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아를 부인하는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 있을 수 없다 — 출 33:20, 욥 42:5, 마 5:8, 요일 3:2-3.
- B. 제단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이시며, 우리의 생활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창 8:20-21상, 출 29:18-22.
- C. 아브라함이 천막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체류자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체류하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 히 11:9-10.
1. 천막은 제단의 결과이다. 제단과 천막은 연관되어 있으며 분리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 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2.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 이것이 천막 생활의 원칙이다.
  3. 천막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참된 고향은 더 좋은 고향, 하늘에 속한 고향인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이다 — 히 11:13-16, 10, 12:22, 계 21:2.
  4. 아브라함의 천막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었다. 성경은 천막으로 끝나친다. 새 예루살렘은 우주 안에서 궁극적인 천막, 궁극적인 장막이다 — 계 21:2-3.
  5. 우리는 회막의 실재인 교회생활이라는 ‘천막’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최종 완결, 곧 최종적인 ‘회막’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다 — 딤펴전 3:15, 레 1:1, 히 11:9-10, 계 21:2-3.
- D. 아브라함은 실패하여 제단과 천막을 버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회복이 있었고, 회복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함께 제단과 천막으로 돌아오는 문제이다 — 창 12:9-10, 13:3-4, 롬 10:12-13, 12:1-2.
1. 결국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천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통하실 수 있는 곳이 되었다 — 창 13:18.
  2.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우정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뒤로 물러난 그분의 믿는 이를 구출하시고, 그리스도를 산출하시며, 그분의 선민 가운데서 마귀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그분의 중보기도자로 얻으실 수 있었다 — 약 2:23, 대하 20:7, 사 41:8, 창 18장, 요일 5:16상, 갈 4:19, 요일 3:8.

**IV.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할 뿐 아니라, 형제를 위해 싸움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이다 — 창 12:7-8, 14:1-24, 롬 4:12.**

- A.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에까지 그의 천막을 옮겨 가는 잘못을 범하였다(창 13:5-12). “그때에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매우 사악하고 죄가 가득하였다.”(13절)
- B.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는 것이었다(빌 3:17, 고전 4:16-17, 히 13:7).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합당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러한 이들을 따라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노선과 주님의 움직이심의 흐름 안에 지켜질 수 있다(고전 15:33, 잠 13:20, 딤후 1:15-18, 2:22).
- C. 소돔 주위의 땅은 비옥했기 때문에 롯은 소돔을 향해 이동하였다. 결국 롯은 그 성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살고 정착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소돔은 정복되었고 롯은 포로로 잡혀갔다 — 창 14:12, 비교 렘 2:13.
- D. 아브라함은 그의 형제의 약점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롯의 고난과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형제가 사로잡힌 것을 보는 것은 수치였다 — 요일 5:16상, 잠 10:12, 약 5:19-20.
- E.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롯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하게 결심하였다. 또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곧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였다 — 창 14:14, 22, 딤펢전 2:8.
- F. 아브라함은 자기 수하의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네 왕과 그들의 군대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렇게 결심한 것은 장면 뒤에서 (‘의의 왕’을 의미하는) 멜기세덱, 곧 (‘화평’을 의미하는) 살렘 왕이 롯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싸움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 창 14:18-20, 히 7:1-4, 25-26, 4:14-16, 롬 8:26-29, 34.
- G. 멜기세덱은 왕의 신분을 지닌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 히 5:6, 10, 7:1-3, 25.
- H.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의 사역을 보여준다 (15-17절).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목양하시고, 우리는 성도들을 목양함으로 그분과 동역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는 공급과 누림을 얻도록 ‘보고, 구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이들이 됨으로 ‘형제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 요일 5:16상, 뱀전 2:25, 히 13:20-21 참조)삼상 17:21-26, 31-38, 40-51.
  - 1.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어떠함에 따라, 곧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에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 뱀전 5:1-4.
  - 2. 장로들은 목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덮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누구든지 교회의 지체들의 결함들과

단점들과 죄들을 드러내는 사람은 장로 직분을 가질 자격이 없다 — 고전 13:4-8, 13; 벧전 3:8-9; 4:7-8; 약 5:20; 잠 17:9; 참조)창 9:19-27.

3.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좋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강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사로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 마 9:12-13, 요 8:7-11, 마 27:38, 눅 22:31-34; 23:42-43; 15:1; 마 9:10; 19:13-15.
4.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타락한 사람들을 찾고 얻어야 한다 — 눅 15:2-7, 8-10, 17-18; 19:10.
5. 우리는 사람들을 방문할 때 반드시 주님의 임재를 가져야 하며, 그분의 임재가 매력적인 요인이다.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삼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고, 사람들은 주님께 매혹될 것이다 — 출 33:14.
6. 사람들을 목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소중히 보살피어야 한다. 소중히 보살피는 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울한 얼굴이 아니라 즐거운 얼굴로 사람들을 접촉해야 한다 — 시 42:5, 11.
7. 사람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또한 육체 되심과 포함과 강화라는 세 단계로 된 충만한 사역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여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보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얻으며,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께 참여해야 한다 — 요 1:14, 고전 15:45하, 계 4:5, 5:6, 빌 3:8-14.
8.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으로 안내하실 것이다. 우리가 양들의 큰 목자이신 그분과 하나 되어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영원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계 7:17.